개교 36주년 기념사

하루하루가 쌓여 이루어지는 미래
새로운 도약 위한 적극적 참여 절실

박 양 원 총장

개교 36주년을 맞이하는 기쁨을 慶熙人 모두와 함께 나누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에 땀흘리는 교수, 미래를 향한 의지를 쌓는, 학생,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직원 그리고 밖에서도 항상 염려와 질책으로 격려해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온 36년의 慶熙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이 모든 慶熙人의 정열과 의지로 인해 거듭된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과거속에서 찾을 수 있는 慶熙의 지도자적 역량을 기뻐하면서 앞으로의 慶熙와 우리사회 전체를 이끌어 갈 慶熙人에게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합니다.

인간은 과정적 존재입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未完에서 完成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감내하는 대학인도 그러한 과정적 존재에 속하며 다음의 세가지 면모를 지니게 됩니다.

첫째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을 쌓으며, 자기의 미숙함을 자각하고 성숙을 위한 자기변신없이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우상을 갖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측정하려한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서로 비교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의 기울기를 가늠할 수도 없으며 내적 성장을 위한 올바른 지식의 섭취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당부하고 싶은것은 대학인은 과정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현재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과정을 중요시함으로해서 우리는 결과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행위의 의미를 결과에서 찾거나 평가를 뒤로 미루지않고 한편으로는 목적과 수단이라는 양분성이 사라지기때문에 목적을 앞세운 비이성적 행위도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정자체에 역점을둘때 미래는 현재와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가쌓여 미래를 이루며 결과가 따로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의 의미의 총체가 바로 결과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를 충일케 하는것이 바로 과정의 의미일 것입니다.

세째로 과정적 존재로서의 대학인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정이란 개념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동적인 것입니다. 정지하고 답보하는 성질의 개념이 아니고, 진행하고 전진하는 성질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은 단순한 기원이나 희망은 아닙니다. 미래지향적 존재는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지 않고, 사물의 양면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부정적 면과 긍정적 면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지혜와 종합적인 안목을 통해서만이 미래는 밝아질 수 있읍니다.

無知에서 知에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미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발전도상의 慶熙 개교 36주년을 맞아 이러한 과정의 의미를 되새기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과정속에 있으며, 오직 땀흘리고 지적 갈등으로 미래를 간절히 희망하는 자만이 오늘 이 기쁨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의식없이 맞이하는 개교 36주년은 시간의 단순한 흐름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우기 오늘의 대학이 당면한 현실은 실로 어려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大学人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됩니다. 먼저 이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을 좀더 넓은 관점아래 재고해볼 필요가 있읍니다.

오늘의 대학에 주어진 과제는 보다 심화된 학문의 발전이라고 할수 있읍니다. 그런만큼 오늘의 현실은 대학인 스스로의 깊은 반성과 더불어 꾸준한 자기성찰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또 이와같은 것은 대학이 하나의 준 사회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기여하고 봉사할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문제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 요구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소박한 자기완성의 인격완성까지도 동시에포괄할 수 있는 척도라고할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꾸준히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도외시 되었던 것이 인격함양일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완성의 길이 어렵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의 가치기준이나 도덕적 행위의 당위성이 자연과학처럼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시에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까닭은 개인의 인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자기계발의 참된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팽창된 물질문명과 거기에 따른 사회의 급격한 변동은 이 세계로부터 인간의 소외현상을 빚었을 뿐만아니라 진정한 가치관의 정립에 혼란을 초래한 것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무한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의 주체자인 학생들은 스스로 창조적인 지성에 의해 부단히 진리를 탐구하는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학생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적 위치를 냉철히 파악하여 진실된 자기를 실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개교 36주년을 맞이하는 慶熙人에게 가로놓인 내외의 문제는 결코 단시일내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더욱 성숙하고 대국적인 지혜가 요청되고 있읍니다. 한가지 일에 대한 서로 다른 두가지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든 것을 통합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비로소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을 가질수 있읍니다.

본인은 오늘 개교 36주년을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고자하는 慶熙人의 한사람으로서 모든慶熙人이 함께 참여하는 慶熙발전의 역사가 창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는 가운데 비판도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내적 단결을 통해 慶熙의 미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6년간 慶熙가 걸어온 고난의 길이 미래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자부하며 그미래사의주역들과오늘을함께기뻐하고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있는가
—개교 36돌에 부쳐

사설

대학의 교육과 자체관리의 포기까지도 입에 오르내리는 혼돈과 좌절속에서 개교 36주년을 맞는다. 개교를 기념하는 마당에는 경축과 낭만보다도 투쟁의 선전 과절규가 가득차있고, 화합의노래보다도 단절의소리만 드높다.

지금 우리 대학은 어디에 서있는가? 앞으로 어떤 대학을 구상해야 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할 개교기념일을 맞으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먼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참으로 고통스럽다. 다만, 현상에 대한 깊은 인식이,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이상의 설정을 가능케 하리라는 생각밑에서,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수렁에 빠져 있는가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오늘의「대학문제」는 결코 우리만이 당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도래된 것도 아니다. 우리 대학만의 특수성이, 그와 같은 대학문제의 보편성과 필연성에 어떻게 부각되고 부채질했는가를 냉정히 음미하고, 우리 대학의 미래를 생각해야겠다는 말이다.

오늘의「대학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변화에 대해 대학의 제도, 조직, 운영의 낙후, 대학(연구, 교육) 과 국가(정치)와의 관계정립의 불확실성, 현대인의 불안, 소외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첫째, 사회의 변화, 발달에 대한 대학의 상대적인 낙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국민소득이 20배 30배로 향상되고 사회의 모든 시설이 고급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시설, 복지, 연구 지원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해오지 않았던가. 학교에 오면 불편을 느껴야 하고, 밖에 나가 초라해지는 대학인들이 되지 않았던가. 산업의 발달은 순수한 진리보다도 유용성이라는 척도에서 지식의 가치를 결정하려 하는데 대학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 오지 못했잖은가. 그 결과 직업과 학문은 유리되지 않았던가. 사회의 다원화, 전문화는 대학으로 하여금 협동체 (Gemeinschaft)적이기보다 이익사회 (Gesellschaft)적이기를 강요하고 있는데 대학안에서는 여전히 도덕적 권위나 인정을 앞세워오지 않았던가.

실제로, 이미 대학 안에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데, 이를 무리하게 하나의 욕구를 위해 집약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던가. 실질적인 이해에 따라 행동하려는 사회 풍조를 외면하고, 대학 안에서는슬로우건을내걸고통합을꾀하려하지않았던가.

둘째, 대학과 국가, 연구—교육과, 정치—행정과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계는 무엇을 가져왔는가? 대학의 고전적 자치의 꿈은 이미 지나간 이상이었다고하자. 1967년12월, 물브라이트의 상원에서의 연설대로, 미국에서조차 「군사, 산업, 정치가 대학을 지배하고 있다.」는게 사실이라고 하자. 그러나, 지금 한국의 대학—연구—교육은 국가—정치—행정에 의해 너무나도 깊고 소상히 지배되고 있지는 않은지. 더구나, 성숙되지못한 수단으로 지원없는 간섭만을 강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학과 교수를 불신하면서, 학생지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정치의 부조리와 미성숙을 규탄하는 학생들 자신이 정치적 논리로 학내의 기존질서마저도 파괴해 오지는 않았는지.

애당초 대학문제의 진원이 학내에 있지 않았는데 학내문제로 몰고온 학생과 학내에서의 해결을 시달해온 당국과는 어느선상에서인가 미성숙한 담합이나 하지않았는지. 현대인의 불안, 소외는 어떻게 대학문제와 밀착돼 있는가? 오늘의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기까지 너무나도 철저히 부모의 관리밑에 있지않았던가. 관리 사회의 메카니즘을 피부로 터득한 부모들의 지혜가, 자식들을 「일류」로 만들려고해왔고, 「일류」(대학생) 가된 자식들은허탈감에, 「이류」가된 자식들은 좌절감에 빠지지는 않았던가. 그리고 문득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게된 대학생들 앞에 좌루탄이 터지지는 않았던가.

언뜻 보면 위의 문제들에 대해 대학이 대처할 묘방도, 책임질 필요도 없을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대학 스스로가 이문제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의 변화가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대학이 사회변화의 방향을 컨트롤할수는 없는 상황임을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니, 본래 대학—학문이란 현상을 뒤쫓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해저문뒤에야 울지 않는가.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학의 체질 개선을 과감히 서두를 때가 온 것이다. 지엽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근원적인 차원에서 대학의 제도·조직·운영을혁신할때다.

국가-정치-행정의 지배를 대학 스스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내에서 스스로 정치적 논리, 지배적 효율, 관료적 안일을 부르지 않을수는 있잖은가. 학내에서의 자치와 민주적 장치를 제도화하는데 망설일 여유가 없다.

본원적인 변화를 외면하고, 가시적인 물리적 힘의 눈치만 살피는 동안, 대학-대학인의 소외는 깊어만 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다.

경희 이름아래 「하나」가 되자
——개교 36주년기념 이사장 인터뷰

조 영 식
<고황재단이사장>

◇인 터 뷰
송 종 길 <본보편집장>
◇일시 : 1985. 5. 3. 오후 3시
◇장소 : 이사장실
◇기록·정리 : 심우천記者

—경희는 無에서 有를 창조해 오면서 지난30년간 성장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희인이라는 자부심이 없어졌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이것은 학교이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제2의 도약을 이룩하려면 이념적인 체계가 있어야할것같은데····

▲조영식=경희의 자성론은 작년가을 사태부터 있었읍니다. 솔직히 말해 때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분석하며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것을 보면 제정신이 들었다는 생각입니다. 자성론이 없는 가운데 발전은 없읍니다. 자성이 있으니 희망을 걸수있으며 당연히 나와야 할 논의가 자발적으로 나온것은 모든 경희인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캠브리지, 옥스퍼드등 외국의 대학들은 그나름대로 학교의 정신이 있읍니다. 과거 「경희」는 서울대학보다 학력이 떨어진것은 사실이었지만 건실하고 행동적인 인간으로성숙돼 취직시 좋은평가를받았읍니다. 초창기 경희는 시대를앞서가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경희가족운동을 일으켰읍니다. 경희 창학의 근본정신은 1951년 전쟁중에 2년제 가인가 초급대학을 인수하고서 「민주화」로 교훈을 잡았읍니다. 학원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를 내세웠는데 국민, 민족의 가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민주인간을 키우는 것은 문화세계의 창조로 이어집니다. 정신이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정신을 만들기위해 교시탑과 교문을 설립했는데 당시는 『개선문보다 크다, 독립문보다 크다』 『가교사 밖에 없는데 웬 것이냐』 라는 등의 말이 끊임없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작아요.

본관을 세울적에도 『가교사에서 공부하는 주제에 바티칸궁전보다더 크게 짓는다』고 비난했지요. 무척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정서교육, 인간교육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서 배우자고 했던 운동을 폈어요.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문화세계의 창조인 것입니다. 정신만 가지고 인간은 살수 없는 것이죠. 중세 암흑시대에는 정신적 가치관을 너무나 중요시한 반면 물질적으로는 빈곤했고 인간생활은 비참했읍니다. 르네상스이후 실용주의사상이 대두하면서 경제적 풍요, 과학기술의 풍요로 지상천국이라고 일컫고 있지만 미래를 잃어버려 방황하고 현실도피적인 생활로 전락한 것이 현대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융합한 인격적인 사회가 돼야하며 미래사회는 동양의 정신문화와 서양의 물질문화가 합친세계, 즉 문화세계를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는 21세기를 내다보고 그 시대에 적합한 국가·세계적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1950년 당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세계 창조를 표상할 수 있는것은 「유엔 헌장정신」 이상의 것이 없다고 봤지요. 지금은 유엔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비난받고 있지만 유엔 헌장정신 이상의 것은 없읍니다. 우리대학의 정신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21세기의 종합문명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의대학인들은세계를바른방향으로이끌지도자인것입니다. 우리학교의상징이 웃는사자입니다. 지도자는 강자이어야하고 강자중의 강자가 사자이지요. 웃는 사자는 외유내강, 즉 정말 부드럽고 온화하며 사자처럼 기개가 크고 호령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웃으면서 겸양하는 것은 왕자가 되기 위한 것이며 외유내강한 경희인을 키우자는 것이지요. 학생들과 교수들의 중의를 거쳐 웃는 사자를 상징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창학이념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애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교심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 중론인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는데····

▲조=사람이 사는 집단에서는 찬반이 있지요. 민주주의에서 찬반이 필요한 것은 미래를 겨냥한 의결을 말하는 것이지요.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으로 참다운 경희를 만들어야합니다.

이 정신으로 민주화라는 교훈을 달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동하는 것은 자칫 교해분자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애교심이 엄청나게 강했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지요. 타학교에서 부러워했고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형편없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제 학교에 돌팔매질을 하는것은 자신이 공부하는 학교를 먹칠하는 행위이며 교육의 장이 아닌 투쟁의 장으로 변한 것이지요. 이런 풍토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내 학교 내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찬반은 필요하지만 내 주장과 이해를 위해 찬반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신을 상실한 지금 단 한가지 내 모교를 사랑하는 입장과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경희가 원하는 길로 가는것이 될 것입니다.

—수원캠퍼스는 서울캠퍼스보다 못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수원학생들의 불만요소가 매우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수원캠퍼스의 발전은 어떻게····

▲조=서울캠퍼스건 수원캠퍼스건 다른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파악해야할것은 오른팔 왼팔 둘다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수원캠퍼스는 각대학의 분교중에서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읍니다. 절대 불가능했던 어려움속에서도 계속 관철해왔던 우리 경희는 분교에 대한 꿈과 기대가 큽니다. 진짜 물건 같은 것을 하나하나 포석하면서 대단히 좋은대학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New Collage system을 통해 본교와 서로 균형있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 놓고 막 추진하려 할때 80년 사태가 터져 총장에서 이사장으로 물러나면서 실제로 학교 일선에 나서지 않았었읍니다. 초창기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집까지 팔아 공사비를 부담했었는데 난리가 나니 피곤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도 있었읍니다. 내가 죽어도 경희는 영원한것이고 죽기전에 어디가 잘못된것이었는지알아야하고 고치고 발전시켜야하겠읍니다. 침체분위기로 떨어지다 보니 교수 직원의 나태함과 전체 경희인의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은 각성이 부족했던 것이고 침체기의 늪에 빠진것은 하느님이 각성하라고 자극을 준것 같지만 정신적 상처가 너무나 큰것이 사실입니다.

학교가 망해간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림픽 유치와 함께 간신히 한모퉁이에 두대학건물을 세우고 있읍니다. 학교에 대해 메모하는 것은 일부에서 오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희대학의 발전은없다는 얘기는 안해야할것입니다. 수원캠퍼스는본교와맞춰쌍벽을 이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것입니다. 사회과학대, 산업과학대등 많은 건설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국제적 수준을 갖춘 천문대건립과 컴퓨터도입등 시대가 요청하는 시설을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또한 도서관, 학생회관등의 건설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세계문화 박물관」 건립도 구상하고 있어요. 동양유일의 자연박물관을 건립했는데, 유럽굴지의 박물관에 있는 미술품, 공예품등을 가보지 않으면 볼수 없어요. 역사, 미술 공부등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우주과학과를 신설했는데 지구시대에서 우주시대로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합된 기분에서 힘이나는것이지 시시하게 집안문제가 있으면 안됩니다. 잘못된 학내의 소용돌이속에서 사회에서는 경희인을 고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더군요. 이제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야할 것입니다.

—광릉캠퍼스로 인류사회 연구소와 국제연구소가 이전했는데 학문연구에 따른활동에대한 방안은어떤지····

▲조=대학이라는 것은 글만 가르치는 곳이아니라 연구하는 곳이기도합니다. 연구소가 처음생긴 대학이 우리대학입니다. 지금 20여개가 넘고 있는데 안타까운것은 활동이 미진한 것이지요. 해보겠다는 연구소에는. 계속적으로 적극지원해줄것입니다. 각각특색있는 연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은 잘살기운동에서 새마을운동이 실현되었고 밝은사회운동도 새마을운동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세계평화백과사전」을 편찬중인데 세계굴지의 출판사와 손잡고서 사전만들어서 로얄터가 있어 많은 연구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밝은사회운동도 3백개 클럽이 있고 엄청나게 많이 참여하고 있어 전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읍니다. 국가적으로 결국은 우리의 세계가 온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때가 되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복지 대학원은 우리나라가 문화국가가 되고 1등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지도자를 키울 수있는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평화복지대학원은 평화지향적,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앞으로의 세기에는 인정이 있고 인간애, 물질사회, 문명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복지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동감한 세계의 교수들이 저마다 강의신청을 하고 있읍니다.

이번 대학원 입학시험에서도 수석자들이 1백30명이나 몰려 그중12명을 뽑았읍니다·이제 경희의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바꾸었고 점차 완전히 일신하게 될 것 입니다. 솔직히 80년 사태만 없었다면 명실상부한 굴지의 대학으로성장했을것입니다. 국제학술회의가 고작해서호텔에서 열리고 있읍니다. 원래 광릉은연구단지로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여력이 없어 3년만에 인가한 것인데 광릉숲속에 자리를 잡았읍니다. 국제회의장, 연수원, 대기업연수원등으로 활용할수 있읍니다.

6백석의 강당, 3백석 1백50석의 강당을 통해 동시에 모여서 회의할 수 있고 분과 토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캠퍼스가되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 경영문제를 고려하여 세계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우리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교류하는등 여기저기에서 경희의 이미지가 불려지고 학부학생들도 좋은 학생들이 더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끝으로 경희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경희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되는것이 중요하고 인간교육을 통해 이겨내야 합니다. 대화가 단절된 것같은 기분이 드는데 예전에는 민주시민특강으로 서로 대화가 있었읍니다. 강당이 빨리완성되면 대화도 자주가질 수 있읍니다. 같은 경희인으로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학교는 80년도이래 5년간의 엄청난 시련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심기일전 경희를 사랑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하여 경희의 바른길을 찾아야 하겠읍니다. 우리 모두가 살수있고 지향해야할 것은 내일 후배들이 역사의 심판을 어떻게 해줄것인가에 대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성과 양심을 안고서 내 모교와 내 자신 온인류를 위해 후세의 사가들이 바르게 평가해줄수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 생각해 보아야할것입니다. 침체된 분위기를 하나로 뭉쳐 이겨내야할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경희정신으로 제2 도약을"
종합문명 사회의 주역은 경희인 돼야
양캠퍼스의 균형있는 발전계속 추진

<5月 —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고)
(황)
(만)
(평)

학사보고

▲1949. 5. 12 신흥 초급대학(2년제) 假認可로 설립 (학교가 경영난에봉착)
▲1951. 5. 18 조영식박사 동재단 인수.
▲1952. 12. 9 신흥대학 (4년제)설립인가.
▲1953. 10. 12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현 교지확보.
▲1954. 2. 9 대학원 설립인가.
▲1955. 2·28 신흥대학교(종합대학) 설립인가 (문리대, 법대, 정경대, 체육대).
▲1955. 5. 12 대학주보 창간.
▲1958. 5. 15 The University Life 창간.
▲1959. 2. 20 대학원 박사과정신설.
▲1960. 3. 1 경희대학교로교명변경.
▲1965. 3. 27 학교법인 고황재단 이사회 동양의과대학 병합결의.
▲1965. 12. 17 의과대학및 약학대학 신설.
▲1966. 3. 14 산업경영대학원 설립인가.
▲1967. 11. 24 산업대학 신설.
▲1968. 6. 18 제2차 세계대학총장회의 개최.
▲1969. 2. 20 공과대학 신설.
▲1971. 5. 18 학생회관, 시청각교육원 준공.
▲1971. 10. 5 경희의료원 (부속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개원.
▲1972. 1. 28 교육대학원 설립인가.
▲1973. 3. 1 치과대학 설립
▲1974. 1. 20 한국최초로 한의학박사과정 신설
▲1975. 5. 9 신입생 선발 전기로 전환
▲1977. 12. 27 장학사 삼의원 개원
▲1978. 6. 13 동양최초·유일의자연사박물관 개관
▲1978. 10. 7 2부대학 신설인가
▲1979. 1. 19 수원캠퍼스 신설인가
▲1979. 5. 18 개교 30주년 기념식
▲1980. 3. 8 수원캠퍼스에서 첫 입학식거행
▲1980. 12. 11 행정대학원설립인가
▲1982. 10. 5 수원캠퍼스 각학부의 단과대학 승격개편안 문교부 정식인가.
▲1983. 4. 9 컴퓨터센타개관
▲1983. 10. 29 평화복지대학원 설립인가
▲1984. 4. 2 대학주보지령800호발간
▲1985. 2. 23 제33회학위수여식
▲1985. 5. 18 개교 36주년

朔風

"모든 잔인함은 弱性에 근원"

인간사회에서 가장 잔인하고 사악한 행위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적 대우가 아닐까? 최근에 일본정부가 在日외국인에게 지문채취를 강요하는 조치는 분명히 이범주에 속하는 비열한 처사라하겠다. 똑같은 생활권에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착실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출생의 근거나 국적의 상이함을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인식을 3년마다 지문채취의 형식으로 재확인하고 그 과정에 그들의 위화감과 좌절감을 심화시키려는 일본정부의 방침은 아무리 선의적으로 해석하고 그저의의 순수성을 이해하려해도 인도정신과 국제적양심앞에 전혀 설득력을 갖지못하는 졸렬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문채취가 그대상자를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法哲学的문제를 간과한다해도 이것이 사람의 프라이드를 무참하게 유린하고 대상자의 허점을 뼈아프게 찌르는 악랄이요 겁탈로 의식된다면 그조치의 합리성과 정당성은 크게 쇠퇴하게 마련인 것이다. 과연 경제대국으로 성장된 일본이 이같은 도덕적 용졸을 부려야하는 것인지? 이것이 일본의 참모습이라면 실로 통탄하고 슬퍼해야할 일이 아닐수 없다는 생각이다.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다. 일본사람은 약삭빠르고 얄팍한 잔재주를 부리기 좋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또 그들은 창조력보다는 모방력에 탁월하고 강자에 약하며 약자에 강하다는 인상을 심어놓고 있다. 자신의 이익증진을 위해서는 페어플레이의 규칙을 무시하기 다반사이며 온갖 교활한 수단으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는 집념에 사로잡혀있다. 이러한 부정적 심성은 일본이 아직도 패전국의 맨탤리티를 탈피하지못하고 국제화시대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또는 적응을 고의로 거부한채 자아중심적인 徒党정신과 전통적인 국수사상을 고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일본은 마땅히 막대한 경제권에 부응되는 정치사회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소한 외국인지문채취물의로 그의 왜소성과 잔인성을 시현하는 憑를 빨리 불식시켜야하지않을까?

세네카는 「모든 잔인함은 弱性에 근원하는 것이다」라고했다. 일본의 과거 잔인성이 국력의 허약함으로 용서될수 있는 것이라면 强大國으로 부상된 오늘의 일본잔인성은 무엇으로 변명되고 용서돼야 할것인가?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이웃이라는 인상이다. 이는 일본이 지역적으로 근접해있지만 정신적 유대측면에서 긴밀하지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번 지문채취문제도 이웃나라의 국적을 가진 우리교포들에게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해주지않고 일률적으로 악법을 적용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교포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시켰던 것이고 또한 우리의 분노를 사게된 것이다. 우리의 국력이 일본보다 강했다면 일본의 우리 교포에 대한 정책이 강압적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조국의 국력이 좀더 튼튼했으면하는 것이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본인들의 노력과 공헌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조국의 힘이 더 크게 영향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교만과 비인도적 만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지를 모아 국가발전에 힘써야하고 그를 통해 국력증강을 도모해야 할 것이이다. 지문채취문제도 엄격하게 따져 지엽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이에 비추어 일본이 경제협조, 무역역조시정, 정치외교의 유대강화, 문화교류및 기술이전등 중요한 문제 해결에 얼만큼 진지한 모습을 보이게 될것인지는 너무도 뻔한 사실이고 이를 상기할때 스스로 몸서리침을 느끼게된다. <끝>